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44호 【루계 제24822호】 주체104(2015)년 2월 13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결정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할데 대하여》를 채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주체104(2015)년 2월 1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할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결정서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멀지 않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을 성대히 경축하는것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여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자랑찬 승리와 강성번영으로 수놓아가는 우리 당의 높은 권위와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떨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의 기치높이 20성상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빛나는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끄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시였으며 빈터우에서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시고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우리 당을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높은 령도예술을 지닌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령도의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한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과 혁명앞에 최악의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그 어떤 강적도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으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려 경제강국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주체의 당건설위업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우리 조국과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령도하여오신 우리 당과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나는 당과 국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여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근본담보를 마련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당의 존엄과 권위는 비상히 높아지고있으며 제국주의반동들의 끊임없는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영웅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되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이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대로 이 땅우에 존엄높은 사회주의강성국가,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뭉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시대속도,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쳐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대책적내용들을 결정하였다.

결정서는 첫째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결사보위하며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색조각상을 령도업적단위를 비롯한 중요단위들에 정중히 모실데 대해 밝혔다.

조선혁명박물관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으로 새롭게 꾸리는 등 혁명전통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해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둘째로, 당을 강화하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당을 강화하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결정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며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데 대해 언급하였다.

결정서는 셋째로,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철벽으로 튼튼히 다져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선군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며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결사수호정신이 꽉 들어찬 사상과 신념의 최강군,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근위대오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할것이다.

결정서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위력한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며 국방공업을 최신과학기술의 토대우에 든든히 올려세울데 대해 밝혔다.

결정서는 넷째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결정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첨단을 돌파하여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며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공업발전에 힘을 넣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업생산에 총동원, 총집중하며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고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결정서는 수산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치고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며 경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올데 대해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2단계,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 **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사, 평양건축종합대학, 1중학교건설과 중앙동물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개건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날자까지 무조건 끝내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건설에서 새로운 대번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해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전력, 석탄, 철도, 금속, 화학, 기계 등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밝혔다.

특히 국가적인 력량을 총집중하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며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다그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결정서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며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진행하며 국토관리사업을 개선하여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애국림,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군민협동작전으로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적극 다그치도록 할것이다.

결정서는 다섯째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미제와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전쟁책동과 핵, 인권모략소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나갈데 대해서와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데 대해 언급하였다.

결정서는 여섯째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을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경축행사들을 성대히 조직진행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열병식과 평양시군중시위를 성대히 조직진행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도록 할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여러가지 정치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진행하도록 할것이다.

결정서는 끝으로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 그 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함으로써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집행하며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행정실무적대책을 세울데 대해 강조하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강화발전과 부강조국건설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 백두산대국건설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정치보도반

내 나라를 금성철벽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불세출의 선군령장

↑ 전방지휘소에 오르시여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9월
→ 끊임없이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11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인민군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5(2006)년 4월

땅크병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2(1983)년 4월

전연구분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3(2004)년 7월

동해안 최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알섬방어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6(1997)년 11월

일당백의 고향인 대덕산초소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5(1996)년 3월

전투기술기재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4월

해군전투함들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2월

적들과 첨예하게 대결하고있는 판문점초소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5(1996)년 11월

사 설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승리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앞으로!

전당, 전군, 전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가 발표되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한한 격정에 휩싸여있으며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승리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더 힘차게, 더 빨리 달려나갈 드높은 열의로 가슴끓이고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구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투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공동구호가 발표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새해벽두부터 앙양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세를 계속 고조시키고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고 온 나라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질수 있게 추동하는 바로 여기에 공동구호의 발표가 가지는 력사적의의가 있다.

공동구호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은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견인불발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조국력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자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중대한 력사적시기마다 혁명적인 구호를 제시하여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령도방식이다.

올해에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맞이하게 된다. 장구한 기간 위대한 어머니당,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누려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올해의 혁명적명절들을 가장 성대하고 의의깊게 맞이할 불타는 각오와 열정으로 심장을 끓이고있다. 천만군민의 이런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가 자랑찬 로력적위훈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의 승리의 포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이번에 공동구호를 발표하였다. 공동구호의 발표는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예술의 위대성에 대한 힘있는 증시로 된다.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올해의 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받아안게 된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

공동구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과 조국건설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지의 뚜렷한 과시이다.

우리 당과 조국의 70년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온 위대한 승리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장구한 기간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백두의 천출위인들을 모시였기에 우리 당이 수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적당,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되고 우리 조국이 불패의 일심단결과 무적의 군력을 가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와 같이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혁명적당건설과 부강조국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며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를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공동구호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길이 빛내이자!》와 같은 구호들은 오늘도 래일도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신념과 량심, 혁명적도덕의리의 기치이다.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하여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천만군민의 충정의 일편단심은 절대불변이다.

공동구호는 현시기 우리 당이 중시하는 정책적문제들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우리 당은 시기마다 중요한 정책적과업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당정책적과업들에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사상이 구현되여있고 혁명실천의 요구가 반영되여있으며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이 어려있다. 오늘날 당중앙을 옹위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은 당이 제시하는 정책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구호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대성이다. 여기에는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당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 과학으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전략적과업들로부터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고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부문별과업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명백히 밝혀져있다. 뿐만아니라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할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거점으로 로동계급의 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칠데 대한 문제,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평양시가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문제와 같이 우리 당이 새롭게 내놓고 중시하는 정책적과업들도 제시되여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과학이며 승리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전체 인민이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당중앙의 령도적권위가 더욱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 당의 구상과 의도가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공동구호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의 큰걸음을 내짚을수 있게 하는 고무적기치이다.

오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고있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농업과 수산, 화학, 석탄전선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공동구호에는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 깃들어있다.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 무적의 군사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고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고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진로를 명시한 바로 여기에 공동구호의 생명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의연히 많은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은 악랄하고 끈질기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배심은 든든하다. 공동구호가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기에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것이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는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천만군민이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이 거세찬 진군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고 지적되여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승리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공동구호에 담겨진 당의 사상과 의도, 전투적과업들을 깊이 체득하고 완전히 정통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공동구호를 환히 꿰들어야 당에서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올해신년사와 결부하여 공동구호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켜야 한다. 한두번 읽어보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하나의 구호들을 자자구구 새기며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분야와 관련된 과업들이 무엇이며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들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모든 교양망들과 선동망들에서 공동구호에 대한 해설선전을 신속히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공동구호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야 한다.

이번 공동구호는 령도자의 결심이자 곧 거창한 실천으로 되고있는 선군조선에서만 발표될수 있는것이며 령도자와 사상도 뜻도 운명도 함께하는 천만군민에 대한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발현이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고 당에서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며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질, 일심단결의 기상을 총폭발시킬 때는 왔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제일가는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천백배로 높이 발휘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투철한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공동구호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나서야 한다.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와 같은 당정책결사관철의 전형단위들처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일제히 떨쳐나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어느 초소, 어느 부문, 어느 단위나 할것없이 온 나라가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관철로 부글부글 끓어야 한다.

공동구호는 행동의 구호, 실천의 구호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업이 방대할수록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지니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억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투철한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혈전만리를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백절불굴의 기개가 오늘의 총진군대오의 힘찬 맥동으로 되여야 한다. 백두밀림의 병기창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수입병을 타파하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식의 투쟁방식과 창조본때로 공동구호의 과업들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 따라세워야 한다.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관철의 성과여부도 조직사업을 얼마나 빈틈없이 짜고드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기만 하면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능히 해제낄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이미 세운 전투목표들과 밀접히 결부하여 공동구호관철을 위한 투쟁목표들을 실속있게 세워야 한다. 일군들은 당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공동구호의 과업들을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야 한다. 대중토의와 집체적협의를 진행하여 제기된 과업들을 빠짐없이 완강하게 실천해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사무실이나 책상머리에 앉아 지시나 하고 전달자적역할을 할것이 아니라 생산과 건설이 힘차게 벌어지는 들끓는 현장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현실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자기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 생산자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기적과 혁신의 묘술과 방법들을 적극 찾아내고 구현해나가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이신작칙의 투쟁기풍으로 대오를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기관차, 송풍기가 되여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공동구호관철에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힘있게 들이대야 한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의 승리는 전인민적인 사상동원전에 의하여 담보된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자!》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모든 전투장들마다에서 혁명의 북소리, 항일유격대의 나팔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공동구호관철투쟁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워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그 어느 지역, 어느 단위, 어느 초소에서나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여 온 나라가 공동구호관철투쟁으로 끓게 하여야 한다.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동맹원들이 공동구호를 절대적인 진리로,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하기 위한 사상사업, 선전선동사업을 심화시키며 동맹사업을 공동구호관철에로 확고히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가 천만군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며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모두다 위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승리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12일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리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인 굳락크 에벨레 죠나탄 무력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12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신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하실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에서는 경축집회가, 따쥐끼스딴공산당에서는 업적토론회가, 앙골라보건성과 까빈다주건설회사에서는 해설모임과 강연회가, 나이제리아 넬판조선의료쎈터에서는 영화감상회가 1월 29일과 30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아. 우쑤쁘바예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 세기 말엽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정치사상진지, 군사진지가 백방으로 강화되고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이 펼쳐진데 대하여 언급하고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쉐. 샤브돌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조선로동당을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1990년대에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여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과 도전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은 조선을 그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게 한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비범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할수 있었으며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수 있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력을 더욱 강화하며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앙골라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과의 친선의 뉴대를 귀중히 여기고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해갈 신념의 메아리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조국강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순결한 충정의 대하가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백두산밀영결의대회가 12일에 진행되였다.

백두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천고의 밀림속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김일성**민족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백두산밀영에 차넘치고있었다.

밀영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들이 떠있었다.

김기남동지, 현영철동지, 곽범기동지와 김용진, 리철만내각부총리들, 당, 무력,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공로자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결의연설들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는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천만군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의 성스러운 붉은 당기에는 주체혁명위업을 빛내이시는 길에서 력사의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시며 이 땅우에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우리 조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이 어려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사상과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겠다.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을 지니고 조국의 운명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백두에서 시작된 동지애의 력사, 일심단결의 력사를 이 세상 끝까지 이어나갈것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키며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지기 위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창건 70돐이 되는 올해를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뜻깊은 해로 빛내이겠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투장들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 인민의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워나가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겠다는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인민무력부장인 륙군대장 현영철동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선군의 한길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군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최강군,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시였으며 적들의 온갖 도전과 침략책동을 짓부셔버리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언제나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정신적기둥으로 삼고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겠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글발을 심장마다에 쪼아박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결사보위하겠다.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전투적기상과 위용을 힘있게 떨쳐나가겠다.

당과 조국이 안겨준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쥔 우리 인민군대는 일단 명령만 내리면 백두산눈보라폭풍처럼 원쑤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리고 정일봉하늘가에 터져오르는 환희의 축포를 **김정은**백두산강국의 최후승리의 축포로 이어나가겠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주시고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내여주시였으며 조선청년운동이 영원히 백두의 혈통을 받들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도록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우리 청년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답게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어버이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겠다.

위대한 한별만세를 부르며 누리에 붙는 불이 되고 철쇄를 마스는 마치가 되여 항일대전의 맹렬한 결사전에 나섰던 혁명의 1세대 열혈청년투사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편단심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결사옹위하겠다.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며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혁명적신념과 반제계급의식,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한 선군시대 청년전위로 철저히 준비하여 경제강국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청춘의 용맹과 슬기를 남김없이 떨쳐나가겠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열화같은 충정과 순결한 도덕의리심이 맥박치는 연설들은 전체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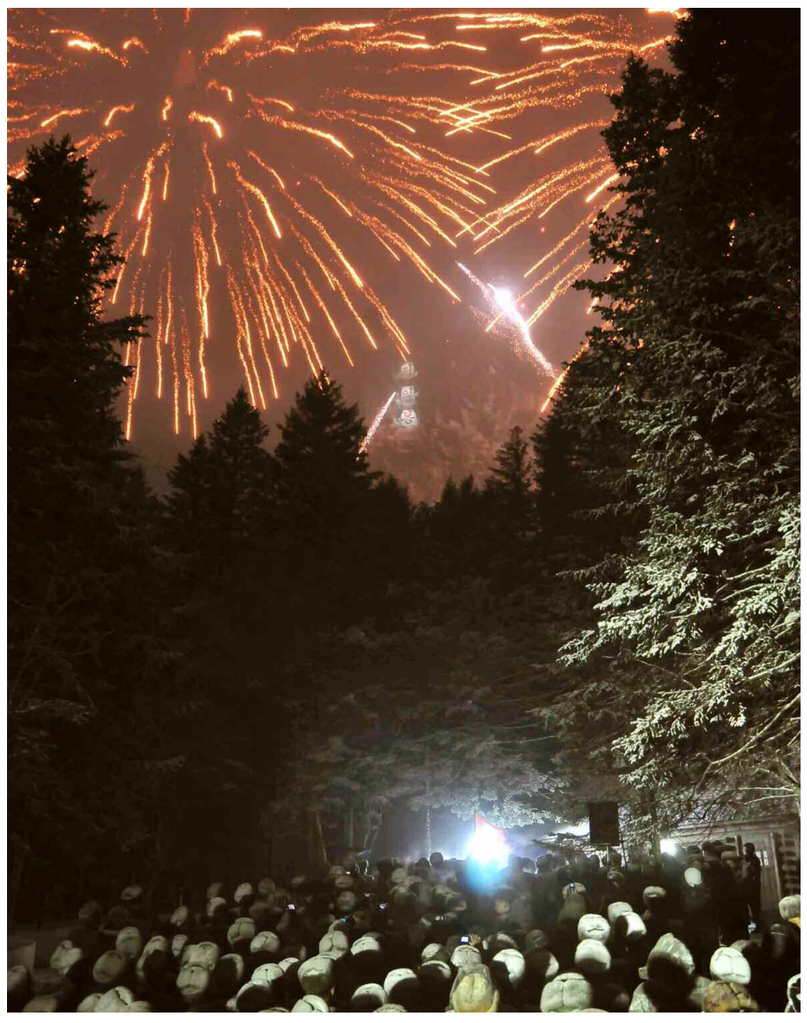
이어 민족대통운이 열린 력사의 2월을 맞이하는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차넘치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필승의 기상과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는 내 조국의 힘찬 맥동인양 줄기차게 터져오른 축포들이 정일봉의 상공에 장엄한 불노을을 펼쳐놓았다.

눈보라치는 백두산에서 위대한 광명성의 탄생을 한없는 기쁨속에 맞이한 항일전의 선렬들의 격정넘친 환호성이런듯 정일봉을 우러러 터쳐올리는 참가자들의 우렁찬 《만세!》의 함성이 백두대지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천하제일설경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백두의 대업의 필승불패성을 구가하며 련이어 터져오르는 황홀한 불보라를 바라보는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백두의 숨결로 맥박치고 백두산줄기처럼 뿌리깊은 혁명신념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혁명열, 투쟁열이 용암처럼 끓어번지였다.

백두산밀영결의대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전투적기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접한 각계의 반향

당사상사업의 전투적위력을 천백배로 높이겠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가 발표된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이다.

공동구호를 자자구구 새기느라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받들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가 어리여오고 우리 당과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기 위하여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력, 숭고한 애국관이 뜨겁게 안겨온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민족사적인 대승리와 대변혁을 이룩하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서는 선군혁명총진군대오가 눈앞에 보이는것 같다.

공동구호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 구상과 의도의 집대성이며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의 작전도이다.

공동구호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은 당사상전선의 전체 일군들은 지금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천만군민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총궐기시킬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는 주체의 사상론을 틀어쥐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는 우리 당만이 내놓을수 있는것이다.

뜻깊은 올해의 총공격전에서의 승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있다. 당사상전선이 끓어야 공동구호의 견인력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양되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최대로 폭발될수 있다.

우리 당사상사업부문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공동구호의 사상과 정신을 심장깊이 새기고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기상이 꽉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전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겠다.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라!》,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쓸어버리라!》와 같은 구호들을 전투적기치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승리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총진군대오에는 언제나 혁명의 북소리, 진격의 나팔소리가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과학전선에서부터 승리의 포성을

이번 공동구호에도 제시된것처럼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의 기관차이다.

공동구호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국가과학원의 전체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매우 무겁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전선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높은 자주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뭉개버리며 모든 경제부문들이 빨리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연구사업이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전이라는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가 내놓는 하나하나의 연구결과들이 원쑤들의 아성을 짓부시는 위력한 무기가 되고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의 밝은 웃음을 지키는 믿음직한 성돌이 되도록 지혜와 재능과 열정을 깡그리 바쳐 최첨단돌파전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가겠다.

당면하여 대규모 수력 및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을 최대한 증산하는데서 요구되는 새 기술연구와 자연에네르기, 지방연료를 적극 리용하여 국가전력망에 의존하지 않는 여러가지 중소형자체전력생산기술을 개발도입하는데 힘을 넣어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 이바지하겠다.

지난해에 수직식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주체철생산기술을 확립한 성과에 토대하여 주체철생산의 공업화실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풀어나가며 여러가지 무중유착화기술을 해결하는것과 함께 공작기계와 생산공정의 CNC화를 위한 주요장치들과 프로그람의 국산화를 실현함으로써 인민경제를 주체화하고 우리 식으로 현대화, 정보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인민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명심하고 원수님께서 주신 평양메기공장의 현대화과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수행하며 농업생산과 수산물생산을 늘이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선진기술들을 대대적으로 연구도입하며 수산물가공기지와 능력이 큰 버섯생산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우리 국가과학원의 전체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공동구호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당과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의 알찬 열매로 황금산, 보물산을 쌓아올리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겠다.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책임을 다하겠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받아안은 지금 우리 식료일용공업성 일군들은 비상한 열정을 총폭발시켜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책임을 다하려는 열의로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경공업부문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과업은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남김없이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여 우리의 경공업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빈터우에서 일떠세워주신 우리의 경공업토대,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평생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며 하나하나 꾸려주신 현대화된 경공업기지들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자금이나 원료, 자재문제이기 전에 바로 경공업부문을 책임진 우리 일군들의 사상문제라는것을 우리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성에서는 공동구호에서 제시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가겠다.

공동구호에도 제시된것처럼 모든 식료공장들의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실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 질경쟁을 활발히 벌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 내놓겠다.

그리고 올해에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현대화를 우리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훌륭하게 실현함으로써 질좋고 영양가높은 어린이식료품이 팡팡 쏟아져나오게 하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회주의 내 조국땅에서 더 높이 울려나오도록 하겠다.

당창건 일흔돐까지 200여일이라는 결승주로가 우리앞에 놓여있다.

우리들은 경직과 도식, 침체와 부진을 배격하고 합리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워 자체의 힘으로 확대재생산을 실현하고 성아래 모든 공장들을 전면적으로 현대화된 세계적인 경공업공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겠다.

그리하여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떳떳이 들어서겠다.

식료일용공업상 조영철

황금벌의 새 력사 대대손손 빛내이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는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을 커다란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이며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이다!》,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자!》라는 공동구호의 구절들에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과 철의 의지가 뜨겁게 안겨온다.

공동구호에 접한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과학농사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영농방법과 기술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갈 때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알곡생산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의 농사경험을 깊이 분석하고 교훈을 찾아 올해에 물절약형농법,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전군중적운동으로 물확보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불리한 자연조건에서도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겠다. 유기농법을 널리 장려하고 농산과 축산,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유기질비료로 농사짓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가겠다.

우리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 애민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 모든 영농조직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 도, 시, 군, 협동농장들에서는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모든 단위들이 그를 따라앞서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도록 하겠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력사를 대대손손 빛내여나가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 10월의 하늘아래 반드시 희한한 황금벌을 펼쳐놓겠다.

농업성 국장 리용구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호소를 결사관철할 열의에 넘쳐있는 국토환경보호성의 일군들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광명성절경축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웅변모임 진행

광명성절경축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웅변모임이 12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직맹일군들, 로동자들,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장소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였으며 륭성번영할 강성조선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인민문화궁전 로동자 전혜영은 《그리움》이라는 제목의 웅변에서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온 나라 천만군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를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고 후손만대에 불멸할 거대한 민족사적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장군님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였다.

웅변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길》에서 평양방직기계공장 직맹이동해설강사 한은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가 창조되고 세계를 놀래우는 대기념비적창조물이 수많이 일떠섰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조국을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우며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삼복철강행군, 눈보라강행군길을 걸으시며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가슴을 뜨거움에 젖어들게 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강의한 정신력을 지닌 만능병사로 키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풍모를 평양가죽이김공장 직맹이동해설강사 김영복은 감동깊게 말하였다.

그는 웅변 《사랑의 떡메소리》에서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전설을 꽃피워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평양맥주공장 직맹이동해설강사 원정란은 웅변 《자애로운 어버이》에서 선군장정의 길에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것은 온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의 크나큰 행복이며 영광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총공격앞으로》라는 제목의 웅변에서 평양역 초급직맹위원장 남춘빈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온 나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웅변출연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여나갈 일념을 안고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노래를 힘차게 불렀다.

【조선중앙통신】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 성황리에 진행

삼지연군에서

지난 5일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이 백두산기슭에 자리잡은 삼지연군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전국각지의 답사자들과 삼지연군내 인민들이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축전장을 끝없이 찾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며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번까지 열번째의 년륜을 아로새기는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에는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 돌격대원들이 창작한 1000여점의 얼음조각들이 전시되여 황홀감과 신비경의 얼음세계를 펼쳐놓았다.

축전장중심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앞에 향기그윽한 꽃다발, 꽃송이를 삼가 드리면서 참관자들은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탄생하시고 한평생 이 땅의 높고 험한 령길을 넘고넘으시며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펼쳐주신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적시고있다.

참관자들은 대형얼음조각들인 《축원의 마음》, 《백두산혁명강군》, 《명령만 내리시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를 비롯한 작품들을 돌아보면서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선군조선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참관자들은 얼음조각 《이 땅에선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지리》,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앞에서 더욱 휘황찬란할 래일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하며 필승의 신심드높이 올해의 총공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설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얼음조각축전장의 여러가지 불장식으로 하여 어둠이 깃들무렵부터는 작품들의 조형예술적효과가 더욱 부각되여 누구나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이곳 축전장만이 아니라 삼지연읍거리에도 군내인민들이 창작한 장식용얼음조각들이 가는 곳마다 펼쳐져있어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는 2월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고있다.

얼음조각들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본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내 나라의 제일봉인 정일봉이 솟아있고 유서깊은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삼지연군에서 해마다 열리는 얼음조각축전이 여서 마음은 절로 숭엄해진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가는 우리의 진군을 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저저마다 격정을 터치고있다.

글 특파기자 전철주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단천제련소에 건설된 유리섬유 및 수지액생산공정 조업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단천제련소에 우리 식의 새로운 유리섬유 및 수지액생산공정이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유리섬유 및 수지액생산공정이 일떠섬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조업식이 12일에 진행되였다.

태종수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임철웅내각부총리, 안정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건설자들과 일군들, 지원자들, 단천제련소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업식에서는 단천제련소에 우리 식의 새로운 생산공정을 일떠세우는데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일군들,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여러차례나 단천제련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유리섬유생산공정과 수지액생산공정을 건설하여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으며 건설자들과 일군들이 공사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당중앙이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었으며 유리섬유 및 수지액생산공정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건설자들과 일군들, 지원자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준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단천제련소를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나라의 보배공장으로,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종합적인 유색금속생산기지로 건설할데 대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높은 뜻을 피끓는 심장에 새겨안은 건설자들과 일군들, 지원자들은 결사의 각오로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하나의 큰 공장건설과 맞먹는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단천제련소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은 제품생산의 국산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기어이 실현하여 주체공업의 위력을 떨칠 한마음으로 현행생산을 보장하면서 방대한 량의 기초굴착과 기초콩크리트치기공사, 벽체축조공사를 끝낸데 이어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수백t의 철근과 자재들을 해결하고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용해로와 불수강장치물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성과적으로 일떠세워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은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은 지상확대류음식방법과 동시견인운반방법을 비롯한 수십건의 기발하고도 대담한 시공방법을 창안도입하여 대상건설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력사가 있는 기업소, 힘있는 건설부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였다고 강조하였다.

유색금속설계연구소의 설계가들과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교원들,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의 과학자들이 제련소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설계와 공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고 우리 식의 수지합성공정을 연구완성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단천지구광업총국과 련관단위 공장, 기업소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대담하고도 통이 큰 작전과 능숙한 전투지휘로 일판을 크게 벌리고 현장정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하였다.

건설공사를 통하여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결사관철해나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억센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과 일군들, 지원자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지니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조업식에서는 단천지구광업총국 총국장 리찬화의 조업사에 이어 단천제련소 기사장 김성태, 설비조립련합기업소 특수기능공사업소 과장 리락영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단천제련소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인민생활향상의 전초선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생산적앙양을 위한 투쟁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단천시약공장의 새로운 생산공정건설을 힘있게 내밀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로동계급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나게 장식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업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운 유리섬유 및 수지액생산공정을 돌아보았다.

당의 뜻을 받들고 올해를 화장품공업발전의 분수령으로 되게 하자

평양화장품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화장품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11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공장초급당비서 최성애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김현, 기사장 리선희, 직장장 림정향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기 위해 공장을 찾으시고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가는데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말하였다.

평양화장품공장은 우리 당이 깊이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며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는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화장품생산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녀성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문명하게 할뿐아니라 그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천연적이고 저자극적이며 기능적인 화장품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며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모를 박고 투쟁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인민들이 다른 나라의것이 아니라 《은하수》상표를 단 우리의 화장품을 먼저 찾게 하며 《은하수》화장품이 세계시장에서도 소문이 나게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화장품의 품질을 담보하고 그 관리를 원만히 할수 있는 분석 및 검측설비들을 그쯘히 갖추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포장용기와 상표도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일수 있게 과학기술지식보급실운영을 잘하며 로동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올해를 화장품공업발전의 분수령으로 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만발하는 김정일화

다함없는 흠모와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며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자강도, 황해북도 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 김정일화전시회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자강도와 황해북도에서 진행되는 김정일화전시회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도의 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의 마음에 떠받들려 성황을 이루게 될것이다.

자강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

백두산의 해돋이인양 활짝 피여난 700상의 김정일화,

추운 겨울이지만 온실들에서 태양의 꽃 김정일화가 계절을 앞당겨 활짝 피여났다.

자강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올해의 김정일화전시회를 더욱 이채롭고 특색있는 꽃전시회로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준비를 실속있게 해왔다.

이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효능이 높은 살균제를 마련했고 대소한의 추운 겨울에도 온실의 온도보장을 위해 현대적인 난방설비도 갖추어놓았다.

온실의 일군들과 재배공들은 김정일화의 생태적특성에 맞게 물주기, 영양액분무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면서 김정일화를 더 크고 붉게 피우기 위해 정성을 다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는 뜻깊은 올해 김정일화전시회에 참가하는 단위들의 수가 늘어나는데 맞게 전시회장의 곳곳에 조명기구를 새로 갖추었고 단위별화대배치를 특색있게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얼마전에도 이들은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화대를 제작하여 전시회장을 특색있게 꾸리였다.

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림업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시급기관 일군들이 자주 전시회장에 나와 자기 단위들에서 피운 김정일화를 전시하게 될 화대를 조화롭게 배치하고 불장식을 비롯한 여러가지 장식을 특색있게 해놓았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자강도김정일화전시회는 성황을 이루게 될것이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세웅

황해북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

황해북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준비를 잘해놓았다.

특히 전시회장을 훌륭히 개건확장하고 불멸의 꽃들을 더 활짝 피워 전시회가 의의있게 진행되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광명성절경축 황해북도김정일화전시회에 더 많은 김정일화를 활짝 피워 전시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불멸의 꽃전시회장을 보다 훌륭하게 개건확장하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사리원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실 불타는 마음안고 군인건설자들과 힘을 합쳐 건설전투를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와 사리원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이 건설현장에 자주 나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었다.

건설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새로운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나갔다.

위원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김정일화를 아름답게 피울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리순철, 박봉훈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위원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꽃가꾸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오태범, 리명기동무들은 꽃재배에 필요한 조건을 자체로 보장하면서 불멸의 꽃에 대한 조직배양에 힘을 넣어 충실한 꽃모들을 시, 군들과 도급단위들에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게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도급단위들과 시, 군들에 내려보내여 앞선 재배기술들을 적극 소개선전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온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불멸의 꽃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한 사업에 온갖 정성을 다 바치였다. 이들은 자체의 실정에 맞게 김정일화재배기술을 터득하여 꽃피우기에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도의 많은 단위들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김은복, 김란히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도 지난해에 비하여 김정일화를 더 많이, 더욱 아름답게 피워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꽃재배에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전시회와 시, 군들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들에 대한 참관을 잘 보장할수 있게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평안북도에서

천만년 길이 받들어모시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자기의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는 인민은 없습니다.》

평안북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김정일화가 아름답게 피여났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일군들은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도김정일화전시회를 의의있게 진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온실실장 김룡학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김정일화조직배양모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많이 생산하여 꽃모수요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이곳 온실의 재배공들은 지난해 7월부터 김정일화조직배양모생산에 온갖 지성을 다 바쳤다.

온실확장공사가 벌어지는 조건에서도 작업반장 한정남, 재배공들인 오문화, 김광국동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순화과정을 거쳐 뿌리내린 어린 꽃모들이 충실하게 자라날수 있게 온습도보장과 영양관리에 힘을 넣었다. 특히 오랜 재배공인 리순희동무는 재배공들에게 꽃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잘 알려주며 서로의 지혜를 합쳐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1500여상의 김정일화를 활짝 피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들에도 광명성절을 앞두고 김정일화들이 활짝 피여났다. 신의주철도분국 당위원회 일군들과 리순애동무를 비롯한 재배공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100여상의 김정일화를 정성껏 피워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하는 도김정일화전시회를 뜻깊게 장식할수 있게 하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면서 향산군, 동림군, 운전군, 구성시에서도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아름답게 피여났다. 이곳 시, 군들만이 아닌 정주시, 룡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시, 군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들에서도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온습도와 빛보장, 공기갈이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김정일화재배에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도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들마다에서는 김정일화가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불타는 충정 송이마다 어려

함경남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때에 우리는 함경남도농촌경리위원회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불멸의 꽃가꾸기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었다.

연건평이 백수십㎡에 달하는 온실에는 김일성화재배실, 김정일화재배실, 화초재배실, 랭실을 비롯한 여러 실들이 있었다.

김정일화재배실에 들어서니 수백상에 달하는 김정일화가 활짝 피여나 우리의 마음을 후덥게 해주었다.

동행한 일군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위원회에서는 온실개건전투를 벌려 겨울철에도 꽃을 피울수 있게 온도와 빛보장대책을 세워놓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지금 위원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김정일화를 더욱 활짝 피우기 위하여 온갖 지성을 다 바쳐가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배양모를 온실에 맞게 순화시켜 화분들에 옮겨심고 정성다해 피워가는 나날에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발휘된 아름다운 소행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꽃의 영양을 보장하기 위해 복합영양비료를 매일 정상적으로 주고 기온이 떨어지는 한밤중에는 보조열설비와 조명장치를 가동시키면서 온실에서 살다싶이 하고있는 재배공 송청일동무와 온실에 자주 찾아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있다는 김철진, 조은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청년동맹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수록 감동깊었다.

온실안의 덧집이며 빛을 더 보장하기 위해 자체로 착상하여 설치해놓은 보충조명장치도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불멸의 꽃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여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충정이 뜨겁게 안겨왔다.

온실을 나서니 여러명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전시회에 내놓을 화대도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고있었다.

열정적인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얼마후 성황리에 진행될 도김정일화전시회를 그려보며 온실을 나섰다.

특파기자 박동석

모두가 원예사, 재배공이 된 심정으로

화대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할것입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화대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철을 앞당겨 활짝 피였다.

화대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강추위속에서도 뜨거운 충정을 바쳐 불멸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낸것이다.

얼마전 온실을 찾았던 우리는 이곳 원예사로부터 불멸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가던 나날에 있었던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였다.

지난 1월 어느날 밤기온은 례년에 없이 떨어졌다. 그날 밤 서둘러 온실로 달려온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군당책임일군을 비롯한 군의 일군들이 벌써 온실에 와있었던것이다.

그들은 재배공들과 함께 온도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었다. 뒤미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일군들도 밤기온이 내려가자 온실부터 걱정하며 땔나무를 싣고 도착하였다.

밤새도록 온실을 떠나지 않고 온도도 알아보고 불멸의 꽃을 더 잘 피워가도록 해당한 대책도 세워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원예사도 재배공들도 눈굽이 뜨거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어찌 그 한밤에 있은 일뿐이랴.

온실에서 꽃가꾸기에 필요한 문제라면 제일처럼 발벗고 도와나선 읍협동농장과 사포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이야기며 출장길에서 구입한 꽃가꾸기에 필요한 참고서적들을 안고 찾아왔던 한 일군에 대한 이야기…

그 마음을 안고 온실종업원들은 불멸의 꽃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다. 필요한 부식토도 자체로 마련하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조건에 맞게 꽃가꾸기에 온갖 심혈을 쏟아부었다.

이런 뜨거운 정성에 떠받들려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붉게붉게 피여났다.

특파기자 리은남

순결한 그 마음 자양분되여

원산항에서

바람세찬 바다기슭에 위치한 원산항온실에 붉은 꽃잎을 활짝 펼친 수백상의 김정일화가 피여났다.

얼마전 이곳을 찾았던 우리는 원예일지에 씌여진 《2015년 2월 5일 125차 현장협의회》라는 글줄에 눈길을 멈추었다.

지난해 9월 김정일화의 첫모를 낸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100차가 훨씬 넘는 현장협의회에서는 불멸의 꽃재배와 관련한 많은 실무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협의회가 끝난 후이면 김정일화의 조직배양모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시약과 비료가 속속 보장되였으며 온실온도보장을 위한 대책들이 기업소적으로 세워졌다.

도에서 진행되는 김정일화전시회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협의회는 더 자주 열렸다. 중앙과도를 비롯하여 불멸의 꽃을 재배하고 연구보급하는 단위들에 일군들이 직접 찾아가 배워온 경험들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문제, 꽃잎의 색을 더욱 붉게 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비롯하여 협의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협의회는 한밤중에 열린적도 있다. 지난 1월 강한 바람이 들이닥쳤을 때였다. 그날 밤 온실에서는 항의 일군들이 모여와 협의회를 열고 온실을 덮은 나래와 박막을 보강하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토의대책하였다. 분공조직에 따라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온실로 달려왔다.

125차의 현장협의회, 참으로 불멸의 꽃재배에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순결한 마음과 헌신이 이 글줄에 그대로 어려있는것이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천일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아름답게 피여났다.

위대한 장군님을 선군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기업소로동계급의 불타는 마음이 어린듯 붉게 핀 김정일화,

지난 기간 온실종업원들은 불멸의 꽃을 더욱 아름답게 키우기 위하여 자기들의 순결한 마음을 다 바쳐왔다. 그리하여 해마다 평안남도 김정일화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뜻깊은 올해에도 온실종업원들은 300여상의 활짝 핀 김정일화를 전시회장에 내놓을 목표를 내세우고 선진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온갖 열정을 다하였다.

책임일군들을 비롯하여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온실에 찾아와 걸린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불멸의 꽃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하여 깨끗한 지성을 바치였다.

지금 이곳 온실로는 하루일을 끝마친 로동자들이 저마다 찾아와 만발한 김정일화를 보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그리고는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더 높은 세멘트생산성과로 빛내일 굳은 결의를 가다듬군한다.

기업소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하천명, 문인남, 허봉수, 김성희, 문은경동무들을 비롯한 온실종업원들은 전시회장에 황홀경을 펼칠 위인칭송의 꽃을 보다 아름답게 키워가기 위해 낮에 밤을 이어 온갖 정성을 다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혁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외국손님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12일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과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으시였으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위해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었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수리아림시대리대사 연회 마련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따맘 쑬레이만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12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리수용외무상, 리룡남대외경제상,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수리아아랍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따맘 쑬레이만 림시대리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김정일령도자각하께서는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령도자각하께서는 영생하시는 김일성주석각하의 뜻을 이으시여 하페즈 알 아싸드각하와 바샤르 알 아싸드 대통령각하와 각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있는 수리아와 조선은 국제무대들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며 공동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호상협력과 지지성원을 강화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각하께서는 수리아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양형섭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주체의 우리 조국,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며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우러르는 자주시대의 태양이시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사상과 위업이 굳건히 이어지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존경하는 바샤르 알 아싸드 대통령각하의 관심속에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확대강화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수리아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수리아정부와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며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바샤르 알 아싸드 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전국료리기술경연 진행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전국료리기술경연이 10일과 11일 평양면옥에서 있었다.

인민봉사총국, 평양시, 각도 급양봉사, 대외봉사, 성, 중앙기관의 5개 부문으로 나뉘여 진행된 경연에는 많은 단위의 료리사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경연은 신선로, 수산물전골, 강냉이찐빵을 비롯한 지정료리와 자기 단위들에서 창안한 고기, 물고기, 버섯료리와 음료를 제정된 시간에 만들어내놓는 료리기술경연과 감자, 강냉이음식전시회 등으로 갈라 진행되였다.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참가자들은 봉사활동과정에 료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련마해온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옥류관, 청류관 등에서 내놓은 지정료리들이 민족의 향취넘치는 조선료리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청춘관, 련못관과 만경대, 대동강, 동대원, 대성구역종합식당, 평양호텔, 경흥지도국, 대성지도국의 료리사들이 출품한 감자찰떡, 강냉이묵종합랭채, 강냉이절편, 강냉이변성짜배기, 감자버섯구이, 감자증기빵을 비롯한 음식들은 독특한 모양과 색갈, 가공방법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평양강냉이전문식당, 평양고려호텔을 비롯한 여러 봉사단위 료리사들의 높은 기술과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는 언감자국수, 강냉이국수, 물고기국, 농어튀기료리 가공시범출연이 이채를 띠였다.

만경대천석식당, 평천구역종합식당, 양각도국제호텔, 락원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 료리사들이 민족음식의 우수성과 해당 료리의 고유한 맛을 잘 살린것으로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11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참가자들에게 시상을 하였다.

경연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민족음식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여나가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주조 무관단

국제친선전람관 참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12일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다.

무관단성원들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세계 수많은 나라 당 및 국가, 정부 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 각계층 인민들이 드린 선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웰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무관 레 주이 롱은 감상록에 김정일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인민들이 드린 선물들은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표시로 된다고 썼다.

꾸바공화국대사관 무관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떼가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물들을 보면서 김정일동지의 국제적권위와 그이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신뢰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수 있었다.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신다.

이날 무관단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되여 인민군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참관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무관 바흐람 간바리 첼라라씨는 위대한 령도자의 뜨거운 보살피심을 받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정말 부럽다,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커다란 성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고 말하였다.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평양육아원, 애육원 참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12일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 우리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이곳의 지능놀이실,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 등을 돌아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웬 탁 퐁 웰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2등서기관은 감상록에 광명성절을 앞두고 훌륭히 꾸려진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참관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였다,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선의 미래가 밝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고 썼다.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

평양문화전시관 참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이 12일 평양문화전시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인류자주위업수행,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생애를 담은 사진문헌들을 돌아보며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이어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력사 등을 소개한 도서와 미술작품들을 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손님들은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팔레스티나국가대사관 1등서기관 이브라힘 아부 무알리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것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참관을 통하여 그이를 그리워하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을 잘 알게 되였다고 썼다.

【조선중앙통신】

(시)

최후성전을 미국땅에서

한 광 춘

더는 대양건너
멀고먼 곳의 땅이 아니다
멸적의 탄두를 추켜든 병사의 조준경안에
그 가증스런 몸뚱이가
통채로 들어있는 미국

무자비한 불을 재운 나의 로케트야
세상이 그 한계를 다 알지 못하는
분노한 조선의 불줄기를 날리자
승리의 전통
그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이 병사에겐
침략의 소굴 미국땅이 지척에 있다

이날까지 남의 땅에서만 전쟁의 불을 지르며
온갖 참화를 들씌운 날강도 미제
제땅에 떨어질 폭탄이
아직은 세상에 없다고 망상하는 미제
조선의 불벼락맛을 이제 내가 보여주리라

이 순간을 기다려
복수를 증오를 섬멸의 탄두에 재우며
이 나라 병사는
일당백용사로 자랐다

50년대의 하늘아래
미제의 수치스런 패전사의 첫 페지는
이 땅에 썼지만
미제의 운명을 영영 끝장낼
멸망의 마지막페지는
최후의 싸움마당 다름아닌 미국땅에
가슴후련히 보기 좋게 새겨주리라

죄악의 본거지를 통쾌하게 들때릴
선군조선의 불벼락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뢰성칠 때
미제에게 더는 없으리라
죽어 묻힐 한조각의 땅도

대타격집단들의 공격로를
미국본토에로 그으시며
작전안에 최종비준하시던
희세의 천출명장의 단호한 모습에서
우리는 보았어라
이 행성에서
침략과 전쟁을 끝장낸 영원한 승리를!

오, 워싱톤의 멱줄을 강철주먹에 거머쥔
병사의 선언을 들으라
백두산총대의 폭풍이
침략의 무리들을 깡그리 휩쓸어간
온 미국땅이 그대로
미제멸망사를 대를 두고 전하는
무주고혼의 떼무덤이 되리라

(시)

철과 불로써

문 용 철

이젠 더 참을수 없다
피주린 승냥이의 본색을
깡그리 드러낸 미제
이 땅에서 생명의 그림자조차도 없애려 드는
오바마강도배의 무리

터져오르라 증오여
서리발치라 총검이여
악의 제국을 송두리채 날려버릴
징벌의 활화산으로
승냥이에겐 오직 철과 불로써!

오, 백두산이 뢰성친다
삼천리가 태동한다
태평양물결우에 격파를 일으키며
조선의 분노가
미국의 땅덩어리를 뒤흔든다

칼에는 장검으로
총에는 대포로 대답하는
신념의 강자들이 지켜선 이 땅
죄물을 익히고 대지를 가꾸며
황금해를 펼쳐가는 그 근면한 마음들에
백년토록 끓여온 증오가 타번지고있다

승리의 전설 많은
이 나라 고지와 골짜기들에
녹쓸어 나딩구는 양키의 철갑모처럼
무주고혼이 된 조상들의 패전길을 따라 가는
가련한 양키의 후예들아

보라
딸라로 길들인 전쟁노예들앞에
어떤 자주적근위병들이 서있는가를
미제의 운명을 지구에서 끝장낸
승리자로 활개치며 살 영웅인민을

우리는 백승의 혈통을 자랑한다
피묻은 성조기를
패전의 눈물젖은 망조기로
멸망의 나락에 처음으로 처박은
이 행성의 첫 민족
백두의 칼바람으로 벼려온
우리의 다기찬 성격과 기질을

인간과 야수와의 이 싸움
강자앞에서만 무릎꿇는 승냥이이기에
우리가 끓이는 쇠물은 그토록 뜨겁고
우리가 벼리는 총검은 그토록 서슬푸른 것이다

장하다
방선천리에 번쩍이는 무쇠철갑의 흐름
미제의 본토에 불벼락칠 무적의 탄두들
핵전쟁미치광이들을 씨도 없이 짓뭉개 버릴
우리의 핵타격무력
그렇다
정의와 평화에 대한 사랑이 열렬한만큼
이 땅에 꽃피는 가정들의 행복이 소중한 만큼
창조와 건설에로 내닫는 우리의 전진이 거세찬만큼
승냥이를 치는
우리의 철퇴는 무자비하다

마지막숨을 톺는 순간까지도
침략과 살륙의
피비린내를 풍길 승냥이무리를
우리는 징벌하리라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리라
오직 철로써, 불로써!

(시)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리 창 식

쌓일대로 쌓인 분노를 터쳐
노호한 이 땅이 불을 뿜는다
멸적의 포성으로 우리치는 웨침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결산의 복수기록장을 총대로 번지며
천만의 가슴가슴에 새기고 산 말이다
태여나고 태여나는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복수의 대를 이어가며 피를 끓여온 말이다
소탕하라, 박멸하라, 미제에게 죽음을 주라!

미국놈들 폭격에 쓰러진
엄마의 품을 허비던
아이들의 피울음을 안고 울리던 이 말
오늘도 최후결전의 총대를 벼리며
병사수첩의 첫 갈피에 우리 새겼다

미국놈들때문에 허리띠를 조여야 했던
시련에 찬 고난의 낮과 밤들에
불덩이로 타끓던 증오의 이 말
오늘은 질풍쳐 돌진하는 무쇠철갑에
결사의 항로에 오른 무적의 함선들에
징벌의 구호로 서리발친다

구천에 사무친 피의 웨침을 안고
세기를 넘어온 우리의 세월이여
산천은 열백번 변한다해도
변할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와의 판가리결산의 날이
눈앞에 왔거니
무자비하라, 정의의 총대여
우리가 이 땅에 숨쉬는것을
그토록 원치 않는 미제
보란듯이 우리 살아
강성할 래일을 안아오기 위하여
그놈들의 마지막숨통을 끊을 때까지
복수의 불줄기 멈추지 말라

오, 가슴후련히
사무친 한을 마음껏 풀어
이 하늘아래서
미제, 그 더러운 이름을 영영 없앨 때까지
조선은 불타는 증오를 폭탄으로 터치리라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희세의 인권말살악법인 남조선의 《보안법》은 당장 철페되여야 한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담화

최근 극도의 통치위기에 몰린 괴뢰패당이 파쑈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해보려고 《보안법》개악과 진보민주세력말살책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리승만역도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진보인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해 조작해낸 《보안법》은 력대 괴뢰집권자들의 정치적반대파제거와 통치체제유지를 위한 살인적인 폭압수단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특히 박정희군사《정권》시기 파쑈교형리들은 《보안법》에 걸어 《유신》독재철페와 사회의 민주화,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단체들을 강제해산하고 수많은 애국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체포처형하면서 전대미문의 치떨리는 인권유린만행을 감행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고 찬양하며 북주민들과 접촉 또는 련계하는 사람, 독재통치에 거슬리거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모두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등 《보안법》의 각종 독소조항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체포처형되였다.

군사파쑈깡패들에 의해 철창속에 끌려가 중세기적인 고문과 처형을 당하고 수십년을 온갖 고통속에 살아온 《보안법》피해자들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수천수만의 사람들의 원한은 구천에 사무쳐있다.

하기에 《보안법》은 오늘날에 와서도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 공포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파쑈악법, 희세의 인권말살악법이 바로 《보안법》이다.

이 파쑈악법에 의해 지금 남조선에서는 합법적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강제해산되고 《국회》의원에게까지 백주에 쇠고랑이 채워지는가 하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을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적단체들의 합법적지위가 박탈되고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와 같은 진보언론들이 가혹한 탄압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현실을 본 그대로 말하였다고 하여 《종북》으로 몰아 체포구속하고 강제추방하고있으며 인터네트를 통해 련북통일을 주장한 사람들을 《찬양고무죄》에 걸어 중형을 들씌우고있다.

괴뢰패당의 파쑈탄압광란은 온 남조선땅을 말그대로 참혹한 인권교살장으로 전락시키고있다.

오죽하면 국제인권단체들과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물론 상전인 미국내에서까지 《인권견지에서 보안법은 철페되여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쑈적인 권말살악법인 《보안법》을 페지하기는커녕 더욱 개악하려 하고있는 현 괴뢰패당이야말로 《유신》파쑈악당을 릉가하는 희세의 인권유린왕초, 파쑈독재광이다.

그 주제에 입만 벌리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떠벌이는것은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괴뢰패당은 《인권》이란 말을 입에 담을 체면도 없다.

악명높은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유신》독재의 부활을 막을수 없고 반인권적파쑈광풍이 란무하는 속에 남조선인민들이 언제 가도 불안과 공포,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당장 철페되여야 한다.

남조선 각계층을 비롯한 온 겨레는 전대미문의 인권말살악법을 철페하고 인권범죄악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인류의 량심과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은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파쑈악법인 《보안법》의 철페를 요구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2월 12일
평 양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격전장》—제주도

최근 남조선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는 보수당국과 그에 항거해나서는 인민들사이의 대립이 다시금 격화되고있다.

제주도인민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 북침을 위한 대규모의 해군기지가 들어앉는것을 처음부터 견결히 반대하였다. 하지만 몇해째 해군기지건설을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괴뢰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긴급정황》에 대처한 해군의 《신속기동》을 운운하며 기지주변에 해병대를 위한 숙소건설을 강행하기 시작하였다. 해군기지건설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숙소건설까지 추진되면서 제주도인민들의 분노는 더욱 치솟았다. 제주도의 강정마을주민들은 각계 시민단체성원들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공사장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롱성투쟁에 돌입하였다. 그에 대한 위협과 압력, 회유기만으로는 인민들의 항거기운을 꺾을수 없게 되자 괴뢰패당은 올해 1월말부터 무자비한 진압작전에 들어갔다. 1 000여명에 달하는 괴뢰해군과 경찰, 깡패들은 천막을 둘러싸고 투쟁을 벌리는 마을주민들에게 달려들어 야수적인 폭행을 가하며 미쳐날뛰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주민 기만하는 공사 중단하라!》, 《해군기지 결사반대!》, 《깡패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힘찬 투쟁을 벌렸다. 파쑈광들의 야수적인 탄압으로 하여 수많은 부상자가 나고 수십명이 경찰에 련행되였으며 천막이 강제철거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남조선언론들은 제주도 강정마을에서의 이 참상에 대해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무차별적인 폭압에 대한 규탄여론이 고조되자 바빠맞은 괴뢰패당은 더이상 공사를 미루면 《년말까지 해군기지를 완성할수 없다.》느니,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였다.》느니, 《불가피한 조치》라느니 하며 저들의 죄악을 정당화해나섰다.

이것은 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반역정책실현과 북침전쟁도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뢰보수패당의 흉악한 정체를 다시한번 폭로해주고있다. 사실상 괴뢰패당의 제주해군기지건설과정은 그에 항거해나서는 인민들에 대한 피비린 탄압의 력사였다.

괴뢰군부패당은 1995년에 이른바 《국방중기계획》의 일환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제주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하여 중단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제주해군기지는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한 수십척의 대형함선과 지어 항공모함까지 정박할수 있게 설계되였다고 한다.

이것은 제주해군기지가 다름아닌 우리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미국의 해외침략전략실현의 주요거점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제주도에 미군함정들이 드나든다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군사적긴장이 높아지는것은 필연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1차적공격목표가 될수 있다고 평하였다. 군사전문가들도 제주해군기지건설은 남조선의 대미종속을 심화시키고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게 될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있다. 제주도에서 미제침략군이 활개칠 경우 이곳 인민들이 어떤 재난을 당하게 될것인가 하는것도 불보듯 명백하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제주도인민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한결같이 반대해나서고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당국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곳의 《경제가 활성화》되는것은 물론이고 《제주해협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며 인민들을 기만우롱하고 저들의 책동을 미화분식하는 한편 인민들의 항거를 폭력으로 가차없이 진압하였다.

해군기지건설착공 당시 괴뢰군부패당은 이곳 인민들이 길목들을 차단하고 자동차에 쇠사슬로 자기들의 몸을 묶으며 격렬히 저항하자 폭압무력을 투입하여 그들을 탄압하면서 끝내 발파를 강행하였다. 그후에도 《생태환경에 문제가 없다.》느니, 《관광미항》이니 하고 인민들을 회유기만하며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폭압소동을 벌리였다. 지어 해군기지건설저지투쟁을 《북의 지령》에 따른 《리적행위》로 몰아대며 《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한다는 리유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650명이 체포되였으며 200여명에 대한 재판이 현재도 진행되고있다. 그들에게 부과한 벌금만 해도 수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야말로 인민들의 견결한 항의투쟁과 그에 대한 보수당국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날과 달, 해가 이어진 제주도는 남조선언론들이 표현한바와 같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격전장》으로 되고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올해안으로 끝내기 위해 파쑈적탄압에 갈수록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러나 인민들은 어제날의 제주도항쟁용사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에 아부추종하는 보수당국의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결사반대하면서 대중적투쟁을 굴함없이 벌리고있다.

라 영 국

성범죄의 썩은 늪에 빠진 괴뢰군

최근 괴뢰군내에서 성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괴뢰륙군의 어느 한 려단장이라는 자가 부하녀성을 상대로 여러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되였다. 조사과정에 이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녀성들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가했다는것이 폭로되였다. 같은 부대의 소령도 부하녀성에 대한 성추행협의로 체포되였다.

괴뢰군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범죄행위들이 만연되여왔다. 이와 관련하여 군기가 문란해지고 여론의 비난이 고조되자 괴뢰군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한다고 떠들면서 성범죄를 뿌리뽑겠다고 호통쳤다. 하지만 기껏 한다는것이 1년에 한두차례정도 《성추행예방교육》놀음을 벌린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조선언론들도 개탄한바와 같이 돌부처보고 아이낳으라는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였다.

지난해 괴뢰군내에서 벌어진 각종 성범죄사건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지난해 9월 남강원도에서는 괴뢰륙군의 한 장교가 깊은 밤 길가던 20대의 녀성을 성추행하고 도망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서 8월에는 괴뢰공군소속 2명의 사병이 술을 마시고 민간인녀성에게 성폭행을 가하였다. 10월에는 괴뢰륙군의 한 사단장이 자기의 사무실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부하녀성에게 성폭행을 가하였으며 같은 부대 대대장도 성희롱협의로 해임당하였다. 지어 어느 한 사단장은 성추행을 당하고 온 부하녀성을 위로해준다고 하며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가 도리여 제가 성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괴뢰군내에서 성폭행이 얼마나 극도에 달했으면 남강원도 화천군의 한 괴뢰군부대 녀성장교가 상판의 성추행에 시달리다 못해 그에 대해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까지 하였겠는가.

남조선괴뢰군에서 녀성들의 인권실태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실업사태로 남성들도 직업을 얻기 힘든 남조선에서 녀성들은 하는수없이 괴뢰군에로 발길을 돌리고있다. 하지만 더 큰 불행을 당하고 지어 목숨까지 잃어야 하는것이 괴뢰군에 들어간 남조선녀성들의 비참한 처지이다. 그들을 대상으로 괴뢰군악당들은 변태적인 수욕을 채우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괴뢰군내에서는 매일 녀성 10명중 2명이 성추행을 당한다고 한다. 괴뢰군내에서의 성범죄행위는 지난해에만도 400여건에 달하였으며 그로 하여 녀성들은 불안과 공포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부대안에 녀성고충상담관이라는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 역시 때없이 성추행을 당하는 형편이다. 얼마전 상판의 끊임없는 성추행에 못이겨 유서를 쓰고 자살한 녀성장교가 바로 녀성고충상담관이였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괴뢰군내에서 벌어진 성범죄사건이 무려 수천건에 달하였지만 피해자들이 보상받은것은 불과 2건밖에 되지 않는다.

녀성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히고도 하소연할 곳없고 보상조차 받을수 없는것이 바로 그들의 기구한 운명이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괴뢰군부가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솜방망이처벌》로 끝난다는데 있다.

남조선의 한 단체가 괴뢰국방부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내용의 일부를 발표한데 의하면 160명중 고작 20여명이 해임처벌을 받고 나머지는 이렇다할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실태가 이 꼴이다나니 얼마전에는 성범죄전과자가 군부재판정에 앉아 성범죄사건을 취급하는 희비극까지 벌어졌다. 괴뢰륙군의 어느 한 사단에서 중령으로 군무한 이자는 상습적인 성범죄자로서 2010년 같은 부대의 부하녀성을 성추행하여 그가 자살까지 하였으나 사망경위가 명백치 않다는 상층부의 비호를 받아 엄한 처벌을 면하였다. 그후 이자의 또 다른 성추행범죄자료가 드러났지만 괴뢰군부는 그를 재판장으로까지 임명하였다. 결국 범죄자가 범죄자를 재판하고있는것이다. 그러니 괴뢰군내의 성범죄가 어떻게 근절될수 있겠는가.

지금 남조선언론들과 사회 각계는 군내부에서 성범죄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원인의 하나가 성범죄자들에게 적용하는 처벌이 너무 약한데 있다고 하면서 무거운 형벌을 가할것을 주장하고있다. 궁지에 몰린 괴뢰군부가 성폭행사건들에 대해 《있어서는 안될 사고》니, 《철저한 진상조사》니 하며 소동을 피우고있지만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온갖 패륜패덕으로 망해가는 괴뢰군에서 성범죄가 늘어나는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다. 바로 이것이 미제의 식민지고용군노릇을 하는 부패타락한 괴뢰군의 진면모이다.

본사기자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록색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브릭스나라들이 록색경제발전을 위한 기금을 내올것을 계획하고있다.

6일 로씨야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브릭스개발은행산하에 설립될 이 기금은 성원국들에서 록색기술발전과 환경보호, 록색경제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알루미니움생산 증대

이란에서 올해 3월 20일에 끝나는 현 이란년도의 첫 10개월동안에 알루미니움생산량이 29만 3 595t이상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893t 더 많은것이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 협조

피지와 시에라레온이 7일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6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쌍무무역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팔레스티나인살림집 파괴행위

미국은 무엇때문에 극성을 부리는가

얼마전 미국무장관 케리가 벌가리아를 행각하였다.

그는 미국이 벌가리아의 《안보와 번영, 민주주의발전을 위해 깊이 전념하고있다.》는 등 별의별 감언리설을 다하며 추파를 던지였다. 벌가리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자기 나라가 적극적으로 활약한다는것이다.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나토사무총장이 이 나라에 대해 《높이 평가된 동맹국》이라는 등 요란한 언사를 써가며 적극 추어올렸다.

그러면 미국과 나토가 무엇때문에 극성을 부리며 벌가리아에 접근하는가 하는것이다.

오늘 미국은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 로씨야를 포위압박하고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그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특히 로씨야의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들을 저들의 세력권안에 끌어들여 로씨야를 견제하는데서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벌가리아에 그토록 열성을 피우며 접근하고있는것은 바로 그래서이다.

벌가리아는 발칸반도에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하여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것으로 하여 랭전종식후 미국주도의 나토는 벌가리아를 저들의 수중에 끌어들이기 위해 책동해왔다. 벌가리아는 2004년에 나토에 가입하였다. 벌가리아는 로씨야가 제안한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계획에 밀접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면서도 미국의 강박에 할수없이 이를 방해하는 길에 따라나섰다.

알려진것처럼 로씨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천연가스생산 및 수출국인것으로 하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로씨야가스를 수입해왔다. 벌가리아를 놓고보아도 가스수요의 90%를 로씨야에 의존하여왔다.

로씨야는 자국으로부터 흑해밑을 지나 벌가리아, 쓰르비아, 마쟈르,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이딸리아를 지나는 거대한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였었다.

2018년까지 완공할것을 목표로 한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을 위해 로씨야의 가즈쁘롬회사와 이딸리아 등 적지 않은 나라 회사들이 가스수송관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다. 로씨야의 가즈쁘롬회사는 가스관건설과 기존가스관보강에 약 100억US$이상을 소비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사태를 계기로 로씨야와의 전면대결에 나선 미국 등 서방은 로씨야가 주도하는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에 방해를 놓았다.

미국은 공사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벌가리아에 입김을 불어넣어 로씨야에 반기를 들고 나서게 하였다. 미국은 벌가리아에 진출한 로씨야의 기업이 저들의 제재명단에 오른 대상이라고 문제시하면서 벌가리아를 다불러댔다. 벌가리아에까지 날아든 미국회 의원들은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계획이 로씨야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만 높여줄뿐이라고 하면서 지역내에 매장되여있는 혈암가스를 개발하는것이 《최선의 방도》라고 제법 훈시질을 하였다. 미국은 더 나아가 벌가리아가 요구하면 혈암가스채취기술을 제공해줄수 있다고 생색을 내기까지 하였다.

천연가스수출국인 로씨야와 수입국들인 유럽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아 리간시켜놓고는 유럽나라들을 저들의 품안에 깊숙이 끌어들이자는것이 미국의 흉심이다.

유럽동맹은 그들대로 로씨야에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의 장단에 합세해나섰다. 유럽동맹위원회는 유럽동맹의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공사에 참가한 벌가리아정부를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영국, 스웨리예 등 나라들은 유럽동맹위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성원국들에 대해 제재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사태가 복잡해지자 벌가리아는 가스수송관공사의 잠정중지를 선포하였다.

이를 두고 미국이 흡족했으리라는것은 뻔하다.

그러나 로씨야의 립장은 강경하였다. 지난해 로씨야는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을 주동적으로 중지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로씨야는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뛰르끼예에 대한 가스수출을 대폭 늘일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만일 벌가리아가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에 참가한다면 로씨야로부터 국제시장보다 눅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을수 있었으며 이 공사를 통해 수십억US$분의 투자를 받는것과 함께 많은 일자리가 생겨 실업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미국의 회유와 강압에 넘어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격의 일을 저질렀다. 결국 손해를 보는것은 벌가리아뿐이다.

외신들은 이번에 미국이 벌가리아에 대해 그토록 극성을 부린것은 이 나라를 나토의 품에 더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한 한갖 기만극에 불과하다고 까밝히고있다.

얼마전에 미국의 《이지스》체계와 《토마호크》순항미싸일로 장비된 미해군구축함 《도날드 쿠크》호가 흑해에 있는 벌가리아의 와르나항에 기항하였다. 현지 대중보도수단들이 밝힌데 의하면 이 미국함선은 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을 유럽에 전개하는데서 기본으로 될 함선중의 하나이라고 한다.

미국은 벌가리아를 적극 추어올려주면서 앞으로 국방비를 계속 늘일데 대한 일종의 암시도 하였다. 이것이 로씨야를 견제압박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미국이 제아무리 기술제공이요 뭐요 하며 귀맛좋은 소리를 늘어놓아도 그것이 남의 등을 쳐 저들의 리기적목적만을 추구하는 비렬한 행위라는것을 세계는 똑똑히 보고있다.

본사기자 라 명 성

ㄱ-51024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